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名家

惠施와 함께 名家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公孫龍(약 320~250B.C.) 역시 마찬가지로 魏魏으로 古代 中國의 論理學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시 戰國시대에 활약한 그는 惠施, 莊子보다는 후배였던 것으로 보이고 <漢書> 藝文志에는 그의 글이 14篇이 있다고 되어있으나 지금 남은 것은 6篇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魏魏은 “白馬는 말이 아니다”(白馬非馬論)라는 魏魏이다. 그는 이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증명한다.

말이란 그 모양을 일컬어 부르는 것이요, 희다는 것은 그 색깔을 이룸이다(馬者所以命形也 白者所以命色也).

색깔을 일컫는 것은 모양을 말함이 아니다(命色者非命形也).

따라서 흰말은 말이 아니다.

(故曰 白馬非馬)

이어서 그는 설명한다—말을 찾을 때에는 누렁말이나 검정말 어느것이랴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나 白馬를 구할 경우에는 누렁말이나 검정말은 안된다. 따라서 白馬는 말이 아니다.

公孫龍의 魏魏은 또 “堅白論”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는 “회고 딱딱한 돌”(堅白石)을 들어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魏魏을 내세운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딱하다”고 아는 것은 만져보는 촉각을 통해 얻은 성질이고 “회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눈을 통해 얻은 성질과 손의 촉각을 통해 얻은 성질을 한 물체에 함께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흰돌”과 “딱딱한 돌”은 존재하지만 “회고 딱딱한 돌”의 존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은 뜨겁지 않다”(火不熱) 바뀌는 땅 위에서 구르지 않는다”(輪不輾地) “나르는 새의 그림자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飛鳥之影未嘗動也) “나르는 화살은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때가 있다”(鏃矢之疾而有不行不止之時) 등등 그의 魏魏은 많다. 그리이스의 소피스트들, 특히 제노의 魏魏을 연상케 하는 그의 말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사용하기 쉬운 개념들을 보다 분명히 사용하기를 경고해준 점에서는 뛰어난 論理的思考의 발달이었다고 생각된다. 白馬도 말임을 상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白馬란 말 가운데 일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白馬=馬”이라기 보다는 “白馬≠馬”임을 강조해둔 것이라고 하겠다. 公孫龍은 특히 이 세상의 존재물에는 性·色·形의 세가지 기본요소가 있다고 본 것 같다. 惠施와 公孫龍, 또는 墨子의 후계자들에서 보이는 論理學 발달의 싹은 그후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儒敎가 정통으로 확립된 그후의 동양사회에서는 인간의 思考의 明證性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은 막연하게나마 爲民의이여야 하고 따라서 政治性 또는 社會性을 가진 것으로만 여겨졌다. 자연과학 같은 엄격하게 논리적인 학문이란 성장하기에 어려운 知的風土가 여기에 있었다 하겠다.

陰陽五行家

이 세상의 모든 것을 陰과 陽의 두가지 힘 또는 요소의 조화와 갈등과 변화로 이해하려는 陰陽사상은 아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註> ……○

마 그 기원이 中國文明의 발생과 거의 같은 때까지로 끌어 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보다 뒤에 서서히 발달한 木·火·土·金·水의 다섯을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五行사상도 春秋시대에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들 두가지—陰陽說과 五行說—는 꼭 같은 것은 아니었으나 약 2천년전까지는 거의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中國의 自然觀의 핵심으로 굳어져 버렸다. 戰國시대 또는 漢代 이후부터 약 2천여년 동안 中國은 물론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도 이 학설은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自然현상의 설명에 또는 人體의 구조와 생리 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까지 널리 응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陰陽五行說은 인간사이의 관계와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설명에까지 援用되곤 했다.

東洋에서의 科學思想을 살펴보자면 음양오행설을 우선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馮友蘭은 그의 유명한 <中國哲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陰陽家의 學問에는 中國科學의 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릇 陰陽家의 주요한 동기는 하나의 계통을 세워 우주의 萬象을 모두 포괄해서 해석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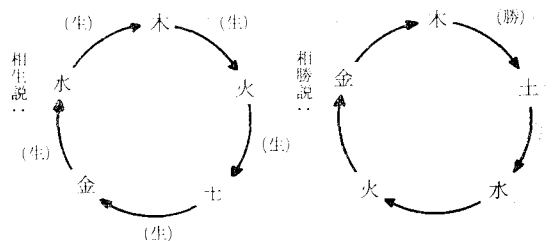
우선 陰陽說을 살펴보자. 음양의 대립적인 관념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 원래 農耕 사회에 접어들면서 햇빛과 응달, 또는 맑은 날과 흐린 날 같은 것이 근원이 되었으리라는 생각도 있는가 하면 男, 女가 그 근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陰陽의 원래 글자모양이 햇빛과 응달의 모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陰陽사상은 여기 근원을 둔다고 많은 학자들은 믿고 있다.

근원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일단 陰陽을 對比시켜 보

는 것을 보려는 태도가 발달되자 모든 현상이 이것으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天地, 明暗, 男女는 물론이요 낮과 밤, 높고 낮은 것, 힘세고 약한 것 등이 모두 음양으로 이해되어 갔다. <論語>와 <孟子>에는 陰陽에 관한 부분이 없음을 보더라도 原始儒學이 음양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老子의 <道德經>과 莊子의 <莊子> 속에는 음양에 관한 것이 있다. 原始道敎가 여기 관련됨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戰國시대쯤까지의 음양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周易>이라고 하겠다. <周易> (또는 <易>이나 <易經>이라고도 부름)에는 “一陰一陽을 일러 道라 한다” (一陰一陽之謂道)라는 표현이 있고 또 “乾은 陽物이며 坤은 陰物이다” (乾陽物也 坤陰物也)는 말도 있다. 이미 다 알고있는 것처럼 <周易>은 乾과 坤의 두가지 卦를 가지고 이를 조합하여 8卦 또는 64卦를 만들어 이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 과정을 예측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던 유명한 豫言書인 셈이다.

여기 乾과 坤을 대표하는 陽爻(—)와 陰爻(-)는 3개씩 또는 6개씩 결합하여 8卦와 64卦가 되는데 이 조합은 바로 2³과 2⁶을 보여 준다.



이 조합이 바로 음과 양이란 두 요소만을 거듭 반복하는 二進法인 셈이고 이것은 17세기 西洋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계속>